

濟州島民謠의 後斂 研究

邊 聖 久*

I. 緒 言	目 次
II. 後斂의 類型	III. 後斂의 機能과 律格的 位相
1. 形態 및 位置上 類型	1. 機 能
2. 構成要素上 類型	2. 律格的 位相
	IV. 結 語

I. 緒 言

民謠는 口演(performance)을 전제로 하는 庶民文學의 대표적 양식이다. 口演은 곧 集團性과 관련된 전제 조건으로, 庶民大衆의 공동 참여에 의해 형성된 민요는 그 歌唱에 있어서 後斂(Refrain, Nonsense-Verse)이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후렴은 辭說 못지 않게 歌唱이나 傳承面에 있어서 助興的, 調律的 機能뿐만 아니라 민요의 本歌詞의 주도적 律格을 이루어¹⁾ 전승에 깊이 관여하고, 심지어는 후렴이 민요 한 謠種의 명칭으로 쓰이기도 한다. 이것은, 아리랑, 이야홍, 너냥나냥, 강강수월래, 달구노래, 널늬리야 등의 민요는 후렴의 일부가 굳어져 謠名이 된 것이고, 또 庶民大衆들이 民謠類型을 지칭할 때 후렴을 지적하기도 하고 기억해내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 同門, 大靜女高 教師

1) 鄭東華, 「韓國民謠의 史的研究」(一潮閣, 1981), p. 53.

후렴은 그名稱에 있어서 餘音, 발음소리, 뒷소리, 葉, 後小節, 口音, 調律素(詞)²⁾, 입타령, 口號³⁾ 등으로도 불리는데, 後敎과 餘音이란 용어가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다. 그런데 餘音은 음악적 용어로, 近世 初期부터 편찬된 樂學軌範 등에 餘音에 관한 記錄이 있고, 그뒤 餘音의 略音으로 '염'(念·敎)을 쓰면서, 특히 中餘音을 '中念', 大餘音을 '大念', 後餘音을 '後敎'으로 구분⁴⁾하면서 후렴이란 용어가 쓰이기 시작했다. 후렴은 形態論의 特性을 표현한 용어로 餘音보다는 좁은 범위에서 詩歌聯의 끝에 붙는다는 연유로 일반화해서 쓰고 있다. 반면에 後敎과 餘音을 다른 개념으로 구분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⁵⁾, 후렴을 분석하면서 餘音이란 용어를 쓰는 경우도 있으나⁶⁾, 후렴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다.

필자는 후렴이란 용어를 쓰며, 歌詞의 한 요소로서 行이나 聯 등의 중간에 단편적으로 歌唱되는 無意味한 音聲은 餘音으로 처리하고 본고에서는 고찰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후렴은 어느 정도 독립된 형태를 지니고, 助興·調律의 기능을 갖고 있으며, 반복 가창되는 데 그 특성이 있다.

이런 후렴의 발생은 민요의 발생과 궤를 같이한다. 후렴의 발생·기원에 대해 原始人들의 喜怒哀의 감정 표현에서 오는 叫聲(울부짖음)에서 찾는 견해⁷⁾가 있으나, 필자는 原始人들이 勞動을 할 때는 力聲(힘냄)에서 찾고자 한다. 原始人들은 그들의 생존을 영위하기 위해 集團의인 勞動을 하면서 동작을 맞추기 위해 서로 호흡을 조절하는 힘내는 소리를 했을 것이다. 그리고 律動的 동작 자체가 勞動의 효율을 거두고 피로를 풀어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을 것이다. 이것은 민요의 勞動起源說, 민요는 그 기능이 두드러지다는 점⁸⁾

2) 鄭東華, 앞의 책, pp.47~48.

3) 黃希榮, "韓國詩歌餘音攷", 「國語國文學」 제18집, 國語國文學會, 1957, p.177.

4) 앞의 책, p.177.

5) 金永一, "「別曲」의 形式과 餘音考", 「加羅文化」 제1집, 慶南大加羅文化研究所, 1982. p.43.

6) 秦東赫, "民謠餘音考", 「國語國文學」 제36집, 國語國文學會, 1967.

黃希榮, 앞의 논문.

金永一, 앞의 논문.

7) 秦東赫, 앞의 논문, p.609.

8) 金榮敦, 「濟州島民謠研究」(조약돌, 1983), p.5.

뷔허(Karl Bücher)가 리듬은 勞動에서 비롯되었다⁹고 한 점, 그리고 현대에도 무거운 물건을 옮길 때 내는 台唱聲(영차, 영치기, 여이차), 모심가, 타작, 방아질 등을 할 때에 먹이는소리¹⁰를 낸다는 점을 통해 입증된다.

이렇게 발생된 후렴은 原始綜合藝術體의 집중적 경제행위에서 오는 勞動과 인간과 자연과의 대립을 조화시키려는 集團의 祭天儀式이라는 두가지 요소¹¹ 속에서 성장하여 三國史記, 卷一에 “起舞歎曰 會蘇會蘇 其音哀雅 後人因其聲 作歌 名曰 會蘇曲”(加點:筆者)과 新羅 景德王代 舊百濟地方의 民謠로 보이는 投壺雅歌譜 所載 阿弄曲의 “漁磯魚堪釣哩 阿弄多弄日日尼”(어귀어감조리 아롱다 롱일일니), 十句體 鄉歌의 阿也, 阿邪, 阿耶, 阿邪也등을 거쳐 高麗俗謠에 이르면 ‘아으 動動다리’(動動), ‘위증즐가 대평성되’(가시리), ‘위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링디리’(西京別曲)와 같이 정연한 형태를 지닌 후렴이 된다. 現傳 民謠에서도 후렴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서 대부분의 민요에 두루 나타나는데, 이런 현상은 각국 민요의 공통된 현상¹²이기도 하다.

따라서 후렴에 대한 연구는 민요연구의 한 분야로서 자못 중요하다. 후렴에 대한 본격적·체계적인 연구는 민요의 形式이나 律格, 內容이나 思想面보다 드문 편이지만 기초적 연구는 시도되었다.¹³ 그런데 민요는 傳承地域의 特性, 즉 地域性이 짙게 나타나고, 지역마다 민요의 분포상황, 사설, 가락, 구연 방법이 다르듯¹⁴ 그 후렴에도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다. 그러한 만큼 傳承地域 민요의 後敎 考察이 선행된 뒤에야 韓國民謠의 후렴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립할 수 있겠고, 이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 濟州島民謠의 후렴 연구도

9) 全圭泰, 「韓國文學의 通時的 研究」(知文社, 1981), p.175. 재인용.

10) 黃希榮, 앞의 논문, pp.178-179.

11) 全圭泰, 앞의 책, p.176.

12) 鄭東華, 앞의 책, p.49.

黃希榮, 앞의 논문, p.177. 日本歌謠에 歌謠의 興을 돕기 위하여 집어넣는 騷詞로 囉詞가 있고, 歐美歌謠의 Ballad라는 詩形에는 Nonsense-verse가 흔히 보임.

13) 鄭東華, 앞의 책, pp.47-61.

任東權, 「韓國民謠研究」(二友出版社, 1980), pp.248-249.

黃希榮, 앞의 논문.

秦東赫, 앞의 논문.

14) 金榮敦, 앞의 책, p.5.

이런 방향에서 시작되어야 하고, 韓國民謠 후렴 연구의 한 체계를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그런데 濟州島民謠의 후렴에 대한 연구는 謠種別로 장가¹⁵⁾와 서우젯소리¹⁶⁾에 국한된 정도이고 민요 전반에 있어서는 전무한 상태다. 필자는 濟州島民謠를 機能謠와 非機能謠로 크게 분류하고, 現場論의 方法論에 근거하여 수집한 「韓國口碑文學大系 9-1, 9-2, 9-3」(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0, 1981, 1983)의 민요를 중심으로, 金榮敦의 「濟州島民謠研究(上)」(潮閣, 1981)의 후렴 자료를 보조적으로 활용하여 후렴의 類型·機能·律格的 位相을 문학적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II. 後斂의 類型

민요의 후렴은 관점에 따라 成分別, 字類別, 位置別, 歌唱別로 분류하는 방법¹⁷⁾도 있겠으나, 민요가 口演을 전제로 하는 만큼 첫째 후렴이 어떤 形態로 어떤 位置에서 歌唱되는가, 즉 後斂 形態 및 位置上 유형 분석이 가능하겠고, 둘째 가창되는 후렴이 어떤 要素로 構成되어 있는가, 즉 構成要素上 유형 분석이 가능하며, 이것이 타당한 방법이 아닌가 한다.

1. 形態 및 位置上 類型

(1) 固定體系 後斂

先後唱 형식의 민요에 주로 나타나는 후렴으로 형태와 가창되는 位置가 고정되어 있다. 그래서 일정한 형태의 후렴이 行 또는 聯이 끝날 때마다 정연히 가창된다. 固定體系 後斂의 가창방식을 도식화하면 歌詞+後斂+歌詞+後斂… 또는 初斂+歌詞+後斂+歌詞+後斂…의 두가지를 추출할 수 있는데, 가사+후렴이 기본방식이다.

15) 尹致富, “韓國자장가 研究” - 제주도 자장가를 중심으로 - 「濟州島研究」 제2집. 1985.

16) 拙稿, “濟州島 서우젯소리 研究”, 濟州大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6.

17) 秦東赫, 앞의 논문, p. 611.

[1] 불미(청탁불미)노래

불미나불엉 담배나먹자
 어형어형 서화디야
 동서서착 새골르민
 어형어형 서화디야
 이놀래로 날을새자
 어형어형 서화디야
 짝대장이 존걸음치네
 어형어형 서화디야

[9-3. pp.932~933]¹⁸⁾

[2] 달구노래

에헤에 달구
 에헤에 달구여
 어구불쌍 달구여
 에헤에 달구여
 이천지에 난 존손
 에헤에 달구여
 인간화생 그려낼적
 에헤에 달구여
 어구불쌍 달구로다
 에헤에 달구여

[9-3. pp.1071~1072]

[3] 사랑가

사랑사랑 내놀던사랑
 연지복판에 북빠친사랑
 에헤야 에이요라
 설마 두리둥둥 내사랑아
 사랑인지 복판인지

18) 「韓國口碑文學大系 9-3」,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3, pp.932~933. 이하 인용자료 표기의 '9-1', '9-2', '9-3'은 韓國口碑文學大系, 9-1, 9-2, 9-3에서 발췌한 자료임.

잠들기전에는 임생각난다
 에헤야 에이요라
 설마 두리둥둥 내사랑아

[9-3. p.514]

[1][2]는 行이 끝날 때마다, [3]은 聯이 끝날 때마다 정연한 固定體系의 後
 斂이 나타났는데, 各篇(version)마다 이같은 유형의 후렴이 가창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형식이다.

A Yankee ship came down the river.

Shallow, Shallow Brown.

A Yankee ship came down the river.

Shallow, Shallow Brown.

And who do you think was master of her?

*Shallow, Shallow Brown.*¹⁹⁾

외국의 민요에서도 固定體系 後斂을 찾아볼 수 있는데, 濟州島民謠에서는
 후렴이 없는 오광산타령을 제외한 모든 非機能謠인 唱民謠 전부와 機能謠인 勞
 動謠에는 멀치후리는 노래, 방앗돌굴리는 노래, 불미노래, 집줄놓는 노래, 땅
 다지는 노래에, 儀式謠에는 달구노래, 행상노래, 진토굿소리에 나타난다.

A. 機能謠

멀치후리는 노래 : 에헤어야 뒤에야
 방앗돌굴리는 노래 : 어기영차
 청탁불미노래 : 어형어형 서화디아
 디딤불미노래 : 아아아양 에에에용
 집줄놓는노래 : 여오호~랑사
 땅다지는노래 : 어허 달구
 달구노래 : 에헤에 달구여
 행상노래 : 어화님차 어화로다
 진토굿소리 : 에야~홍

19) Ruth Finnegan. 「Oral Poet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7). p.219.

B. 非機能謠(唱民謠)

[2. 律格的 位相의 (2) 非機能謠 後敎의 律格 제시자료 참조]

그 특징은 唱民謠를 제외한 勞動謠나 儀式謠가 모두 唱법이 先後唱으로 集團의 勞動이나 儀式을 進行할 때 가창된다는 점이다. 先唱者가 사설을 부르면 노동이나 의식에 참여한 서민대중이 일제히 후렴을 부른다. 이때 후렴이 固定되어 있어야 다수의 後唱者들이 흐트러짐없이 후렴을 合唱할 수 있고, 또한 동작을 통일시킬 수 있다. 둘째의 특징은 唱民謠인 非機能謠는 전부 후렴이 固定되어 있고 동일한 위치에서 정연히 가창된다는 점이다. 이것은 唱民謠는 그 사설이 정연하게 다음어져 있고, 어느 정도 唱에 소질과 전문성을 지닌 唱者에 의해 전승되기에 후렴 역시 고정되고 정연한 형태를 지닌 것이라 보겠다. 즉, 아리랑, 강강수월래, 널빤지야 등 전국 분포의 민요와 같이 전승되는 과정에 정연하게 다음어진 결과라 하겠다.

(2) 準固定體系 後敎

후렴 형태가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으나 各篇에 따라 變化를 보이며, 가창되는 位置도 行과 聯 사이, 또는 序頭, 結尾에서 다소 불규칙적으로 반복 가창되는 후렴 유형으로 獨唱, 交換唱의 勞動謠에 주로 나타난다.

[4] 방아노래

- | | |
|----------|-------|
| A. 이어이여 | 이어도호라 |
| B. 이어방이 | 고들배지영 |
| A. 이어방이 | 이어도방이 |
| B. 본디즌냐 | 붉은때호라 |
| A. 이어이여 | 이어도호라 |
| B. 이어도호라 | 이어방이 |
| A. 이어이여 | 이어도호라 |
| B. 가시오름 | 강당장집의 |
| A. 이어이여 | 이어도호라 |
| B. 쇠쿨방이 | 새글럼서라 |
| A. 전성꽃인 | 요내몸가난 |

- | | | |
|----|------|-------|
| B. | 전심궂인 | 요내몹가난 |
| A. | 요솻클도 | 새맛아간다 |
| B. | 요솻클도 | 새맛아간다 |
| A. | 이여이여 | 이여도호라 |
| B. | 이여이여 | 이여도호라 |

[9-1. pp. 242~243]

[5] 김매는 노래

- | | |
|------|-------|
| 어기여랑 | 사디로고나 |
| 앞명에랑 | 들어나오라 |
| 뒷명에랑 | 나고나가라 |
| 어기여랑 | 사디로고나 |
| 사디불령 | 앞명에가게 |
| 어기요랑 | 사디야 |
| 검질짓고 | 쿨눅은밭되 |
| 사디로나 | 우겨근매자 |
| 어기요랑 | 사디로고나 |
| 어기요랑 | 사디야 |
| 어기요랑 | 사디로고나 |
| 오늘오늘 | 오늘이여 |
| 매일장상 | 오늘이민 |
| 다시오기 | 어려워라 |
| 어긴여랑 | 사디로고나 |
| 요나이랑 | 멧나이궂정 |
| 일천간장 | 섹이명살리 |
| 어기여랑 | 사디로고나 |

[9-3, pp. 781~782]

[4]는 교환창, [5]는 독창으로 가창된 것이지만 그 逆으로도 가창되는데, 이는 해너노래도 마찬가지다. [4]와 [5]를 보면 후렴 형태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조금씩 변화되어 있다. 그러나 가창된 빈도수에 따라 많이 나타난 후렴을 추출해 볼 수 있는데, [4] 방아노래는 “이여이여 이여도호라”, [5] 김매는 노래는 “어기여랑 사디로고나”를 들 수 있다. 이 두 후렴이 最多頻度數를 보이므로 멧돌방아노래와 김매는 노래의 代表 後敍이라 할 수 있다. 다음 歌唱되는 位置를

보면 [4]와 [5] 모두 序頭와 結尾에 후렴이 가창되었으나 行과 聯 사이에는 일정한 위치가 없으며, 계속 후렴만 나타나기도 했다. 후렴 위치가 固定體系의 後敎처럼 확연히 고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대체로 序頭와 結尾, 聯 사이에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창법을 先後唱의 방식으로 바꿔 부르는 경우에는 후렴의 形態와 位置가 고정되기도 한다.

[6] 김매는 노래

앞명에야 드러나오라
 어기여라 사대로다
 뒷명에랑 무너나지라
 어기여라 사대로다
 짐질것고 굴늦은밭되
 어기여라 사대로다
 소리로나 우경은가자
 어기여라 사대로다

[9-2, pp. 515~516]

[7] 해너노래

이여싸 이여싸
 이여싸 이여싸
 요별젓고 어딜가리
 이여싸 이여싸
 진도바당 혼골로가민 이여싸
 이여싸 이여싸 이여싸나
 흔착손에 빛창래곡
 이여싸 이여싸

[9-1. pp. 219~220]

해너노래, 맷돌방아노래, 김매는 노래는 濟州島 勞動謠의 대표적 謠種으로 그 창법도 獨唱·交換唱·先後唱으로 다양한데,²⁰⁾ 선후창이라는 창법상의 특

20) 金榮敦, 앞의 책, p. 38, p. 76.

姜性均, “제주도 김매는 노래”, 濟州大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6, pp. 24~26.

정으로 말미암아 한 各篇內에서는 [6] [7]과 같이 固定體系의 後敎이 나타날 수 있지만 各篇에 따라서는 후렴 형태가 달라진다.²¹⁾

準固定體系의 後敎은 唱民謠에는 나타나지 않으며 대부분의 노동요에 나타난다. 謠種別로 변화되어 나타나는 후렴을 정리해 보면 그 후렴의 변화 양상을 알 수 있다.

맷돌방아노래 : 이여이여 이여도호라
 이연이연 이여동호라
 이연이연 이여로고나
 이여이여 이여도꺾레
 이여이여 이여도방에
 호랑호랑 이여도호랑
 이여동호라 이여동호라

김매는노래 : 어기여랑 사디로고나
 어긴너랑 사아디야
 어어허랑 사아디야
 어기여라 사대로다
 어기야뒤야 방에로고나
 어기영어기 뒤여로다
 어화능창 방아로다
 어어향어기야 뒤야로고나

해녀노래 : 이여이여 이여도사나
 이여도사나 이여도사나
 이여싸 이여싸
 어기여서라 어기여서라
 어기야뒤야 산이로고나
 이기어꺾라 이기어꺾라
 이기여쳐라 뒤여라쳐라

21) 姜性均, 앞의논문, p. 25에 인용된 김매는 노래의 후렴은 先後唱의 唱法으로 불러졌는데 “어기여랑 사아디야”로 「6」과 다른 형태를 보인다.

타작노래 : 어야홍아
 어야홍
 어야도홍아
 어기야홍
 어야하야
 어기도하야

나무쫓개는노래 : 서두리도 더럼마야
 서두리도 더럼마
 서두리 더럼마
 어여두리 더럼마야
 어허두리도 더럼마야

짚두드리는노래 : 서두리도 더럼마야
 서두리도 더럼마

나무켜는노래 : 에야 홍애로구나
 어어~어야도 홍아
 어허어허어어이 홍아기로고낭아
 여여싸

흙덩이바수는노래 : 서궁아기 더럼마
 홍애로다 호옹애
 서궁나미 더럼마
 어야호호

흙이기며 두드리는 노래 : 서두리 더럼마
 서두리 더럼
 어기 더럼마
 서두리더럼 서두리더럼

보리훑는노래 : 어야두리야 홍애로다
 어허두리 더두럼아
 허두리더럼아 홍애로다
 허두리야 홍애로다
 허두레더럼아 산이로다

꿀베는 노래 : 어허어허야 흥아기로고나
 어허어허어어어 흥애기로고나
 아허어야 방아흥애기로고나
 두렴두려어험 아헤어허어허마야

상기 謠種의 후렴들은 한 各篇內에서 뿐만 아니라 各篇마다 변화를 보이며 나타나는데 그 頻度數로 볼 때 처음 나열한 것이 代表的 後斂型이라 할 수 있다.

準固定體系 後斂의 특징은 변화의 다양성에 있다. 그러나 律格이나 基本的 形態를 파괴한 변하는 아니다. 변화가 가능한 것은 후렴의 앞 구절과 뒷 구절의 결합관계가 자유롭기 때문으로, 이것이 원인이 되어 다른 후렴과 쉽게 결합되기도 하고, 또는 후렴의 한 句가 분리되어 歌詞와 결합되기도 한다. 또한 이것은 謠種別로 후렴의 교류를 가능하게 하여 나무쫓개는 노래, 짚두드리는 노래, 흙덩이바수는 노래, 흙이기며 두드리는 노래 등은 노동의 형태는 다르나 손을 들어 내리치는 동작이 일치함에 따라 유사한 후렴이 많이 나타난다.

(3) 非固定體系 後斂

노래 자체에 일정한 형태를 갖춘 후렴이 없고, 가창되는 위치도 불규칙적이어서 序頭, 行 중간, 行的 끝, 結尾에 가창되기도 하고, 가창되지 않기도 하는 後斂型으로 獨唱의 일부 勞動謠에서 찾아볼 수 있다.

[8] 발가는 노래

요송아지야 돌아나오라
 어형어허~어야 어허어어~야어야
 [막대기를 잡고 노래를 이어간다]
 어허어허~ 어어어허~ 돌아나오라 어허어~어야
 요새저새 돌아나오라 어허어허어어 어허어어어어~ 돌아나오라 요새 일락서산
 에 에헤에에~해지는처리 모르는 새로구나

[9-3, p.757]

[9] 밭밟는 노래

어러러러러러 어러어어~ 어러러러러어어어~ 어러러러러러
 요물저물될 훗다 빛나게말앙 고비고비 잘들명 즈근즈근 노쁜 동산 야쁘게 볼르

곡 야픈 동산이랑 노쁘게 불르라.
 어러러러러러 어러러어어~ 와와와
 어러러러러 러러러 느구슬이 흰구슬이나 일년내냥 낫다근 요세덜 혼구슬 어러
 러러러 어러러러러

[9-2, pp. 787~788]

이같은 후렴은 勞動謠 중 農業謠에서 발밧는 노래, 밧가는 노래, 마소모는 소리와 製粉謠에서 연자매노래에 나타나는데, 그 형태가 고정되어 있지 않으나 위 네편의 후렴이 유사하다. 이것은 歌唱機緣이 말이나 소를 몰면서 하는 노동에서 가장된다는 데서 연유한다. 그리고 “어허어허”, “어러러러...”, “이러이러...” 하는 형태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마소모는 소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 노래의 각편에 나타난 후렴들을 고찰해 보면 일정한 형태의 후렴을 추출해낼 수 없으며, 歌唱位置도 일정하지 않다. 또한 後敎이 정연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사설도 산만하다. 이 유형의 후렴은 후렴性格을 띠지만 行 중간에 나타나는 것은 餘音의 性格도 띤다.

이런 유형의 후렴을 통해 민요의 原初의 形態를 고찰해 볼 수 있는데, 특히 발밧는 노래는 그 대표적인 노래다.

[10] 발밧는 노래

어러러러 어허허허이
 어러어어영어러어허어영 어허어허어어어허어허어어영
 어어어어하랑 하아아아랑
 어허렐렐렐러
 어러러러어허어어 어허러어허이
 어허어어 어허어어어허렐렐렐

[9-1, pp. 263~266]

조를 파종한 다음 마소떼를 앞세워 밧을 밧으며 부르는 原始性을 띤, 제주도에서만 전해지는 노래로 가락이 구성지고 느린 편이다. 그런데 [10]은 발밧는 노래의 다른 各篇과는 달리 意味 있는 辭說은 3行뿐이고 노래 전체가 無意味한 소리로 이루어졌다. 후렴 위주로 부르던 노래가 전승되는 과정에서 [9]처럼 사설의 삽입이 늘어난 것이 아닌가 한다.

2. 構成要素上 類型

후렴이 어떤 요소 즉 無意味한 말인가, 아니면 意味있는 말인가, 또는 이 두 요소가 결합 구성되어 있는가에 따라 聲音後敍, 語辭後敍, 聲音語辭混成後敍으로 유형 분류가 가능하다.

(1) 聲音後敍

聲音後敍은 無意味한 말로 이루어진 후렴으로 노동요 후렴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聲音後敍은 원래 감탄사, 힘내는 소리, 의성어 등으로 이루어진 것과, 의미가 있었으나 전승과정에서 의미가 상실된 것이 있다.

濟州島民謠에서 機能謠의 후렴은 대부분이 聲音後敍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A. 機能謠(勞動謠)

맷돌방아노래	: 이여이여 이여도홍라
해녀노래	: 이여사나 이여도사나
멀치후리는노래	: 에헤어야 뒤에야
타작노래	: 어야홍아
방앗돌굴리는노래	: 어기영차
집줄놓는노래	: 여오호~랑사
발밟는노래	: 어러러러어러어 어러러어러어
(발가는노래, 연자매노래, 마소모는노래)	
짚두드리노래	: 서두리도 더럼마야
(흙덩이 바수는 노래, 나무쫓개는 노래, 흙이기는 노래)	
블미노래	: 어힘어힘 서화디야(청탁블미)
	아아아양 에에에용(더님블미)

B. 非機能謠(唱民謠)

봉지가	: 에헤 이히이히 야야야아
	에헤 이히이히 야야야아
	야아 에헤에에헝에~ 얼씨구
서웃켓소리	: 아하아하양 에헤에영에헤에용
산천초목	: 어양 어기노 나노난다.

聲音後敎은 唱民謠보다는 勞動謠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韓國民謠뿐만 아니라, “Unaya unaya”, “o ha le o ha le!”²²⁾와 같이 外國民謠에서도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2) 語辭後敎

意味 있는 辭說로만 이루어진 後敎型으로 機能謠에는 한 종류의 민요에도 나타나지 않으며 唱民謠 3편에만 나타난다.

계화타령 : 에따요년 돈받아라

지화는 산경이돌고서

김계화 내돈만 받아라

판덕정앞 : 지화자 종을소 대명당 허리로구나.

아기종 아장거려서 신목사 후리레 나간다.

산천초목 : 받읍니다 받읍니다

지화자 아이고 받읍니다

이 語辭後敎은 원래 本歌詞였으나 전승과정에서 독립되어 後敎化한 것이 아닌가 한다.

(3) 聲音語辭混成後敎

無意味한 말과 意味 있는 말이 결합되어 하나의 후렴을 이룬 것으로 機能謠에 9편, 非機能謠에 8편 총 17편의 민요에 나타난다.

A. 機能謠

김매는노래 : 어진여랑 사더로다

양태노래 : 이여이여 이여도양태

탕전노래 : 이여이여 이여도탕전

22) Ruth Finnegan, 앞의 책, p. 181. p. 204.

- 망건노래 : 여이여 이여도후라
이연맹긴 못어나지라
- 꿀베는노래 : 에야아 흥애기로구나
- 보리훑는노래 : 어야두리야 흥애로다
- 달구노래 : 에헤에 달구여
- 행상노래 : 어화님차 어화로다
- 염불노래 : 에헤에헤어어여야 얼렷거리고 염불이라

B. 非機能謠(唱民謠)

- 오들또기 : 둥그대당실 둥그대당실 여도당실
연자버리고 달도뵈다
내가 머리로 갈까나
- 이야흥 : 이야흥 야아흥 그렇고말고요
이야흥 야아흥 다꼴을말이나
- 동풍가 : 에헤에 에헿이~이헤요 사랑아
내동동 내사랑만 간다
- 사랑가 : 에헤야 에이요라
설마 두리둥둥 내사랑아
- 용천검 : 에야라뒤야 에야라뒤야 방애방애로다
- 중타령 : 에헤용에야 에헤용에야
요리조리나 후야도
지야절로 심중만난다
- 너냥나냥 : 너냥나냥 두리둥실 놀구요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상사랑이로구나
- 꽃염불 : 아헿이이여 에헤이이여
어흥거려 보리로다.

機能謠와 非機能謠의 후렴을 비교하면 機能謠는 無意味한 말이 意味있는 말보다 비중이 크며, 非機能謠는 機能謠와 반대의 현상이 나타난다. 이것은 機能謠의 후렴은 전승과정에서 의미를 상실하여 가는 것을 보여 주는 반면, 非機能謠의 후렴은 전문적 창자, 또는 歌唱力이 뛰어난 창자에 의해 전승되고, 근래에 本土 民謠가 유입,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서 意味 있는 말의 비중이 큰 것으로 보겠다.

Ⅲ. 後敎의 機能과 律格的 位相

1. 機能

후렴은 민요 가창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만큼 필수적인 요소로 대다수의 민요에서 가창되는데, 이것은 민요 형식의 한 특징으로 후렴은 민요의 가창에서 중요한 機能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후렴의 기능에 대해 鄭東華는 性能이란 용어를 쓰면서 ① 調律的 性能(自己表出)과 ② 休息的(轉換的) 性能²³⁾의 두 가지를 지적했으나, 필자는 濟州島民謠를 고찰한 결과 A. 助興·調律的 機能. B. 休息·轉換的 機能, C. 導唱·結詞的 機能을 추출할 수 있었다.

(1) 助興·調律的 機能

후렴은 전승되는 가운데, 음악적이고 문학적인 소리로 다듬어지고 누구나 쉬 부를 수 있도록 整齊되어 민요 가창의 興을 돕고 音樂的 旋律을 일으키는 구실²⁴⁾을 한다. 후렴의 이런 기능은 장시간의 노동을 요하는 勞動謠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海女들이 작업 출발 과정에서, 出稼하는 뱃길에서 원거리까지 노를 저으며 간다는 것은 고된 노동이다. 이때 海女들은 作業實態나 그들의 生活感情을 노래로 불렀으며,²⁵⁾ 후렴 “이여도사나 이여도사나”는 노래의 興을 불러일으키고 律格을 조절하여 노래를 지속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힘을 돋구기도 한다. 멧돌방아노래의 “이여이여 이여동향라” 불미노래의 “아아아양 에에에옹”(더딤 불미), “어형어형 서화디야”(정탁불미)도 해녀 노래와 마찬가지로 장시간 노동 勞 하는 과정에서 불려지는 것으로 助興·調律的 機能이 강하다.

非機能謠인 唱民謠는 16謠種 중 2種을 제외한 14謠種의 민요에 후렴이 있는

23) 鄭東華, 앞의 책, pp. 49~50.

24) 앞의 책, pp. 49~53.

25) 金榮敦, 앞의 책, p. 30.

데, 唱民謠는 일정한 생활상의 기능은 없으나 노래 자체의 즐거움이라는 기능²⁶⁾이 있어서 즐겨 불리면서 춤을 동반하기도 한다.²⁷⁾ 또한 機能謠가 본래의 기능을 떠나서 부르는 기회가 많아지면서 非機能謠化하기도 하는데, 이는 노래의 音樂性 즉 후렴에 의해 창출되는 旋律이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

(2) 休息·轉換의 機能

민요의 行과 行, 聯과 聯 사이에 가창되는 후렴은 調律의 機能은 물론, 先唱者에게는 다음의 歌詞를 생각해내는 休息의 시간을 갖게 하며, 後唱者에게는 歌詞의 이해를 돕고 그 내용을 吟味하는 시간을 마련하는 기능을 갖는다.²⁸⁾ 이같은 기능은 先後唱의 민요 후렴에 두드러지지만 獨唱이나 交換唱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11] 이야흥

정떨어졌구나 정떨어졌구나
 이야흥 그렇고말고요
 이야흥 야아흥 다꼴을말이나
 한라산 상상봉 높고도 높은봉
 이야흥 백록담이라
 이야흥 야아흥 그렇고말고요
 이야흥 야아흥 다꼴을말이나
 고랑부 삼성혈 나오신 곳이라
 이야흥 삼성혈이라
 이야흥 야아흥 그렇고말고요
 이야흥 야아흥 다꼴을말이나

[9-2, p. 569]

[11]은 先後唱으로 가창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후렴을 받을 사람이 없을 때는 獨唱으로도 불린다. 그렇더라도 창자는 고정된 형태를 지닌, 기억된 후렴을 부르면서 다음의 歌詞를 생각하고 전환시켜 부르게 된다.

26) 張德順外, 「口碑文學概說」(一潮閣, 1980), pp. 87~88.

27) 拙稿, 앞의 논문, pp. 7~8.

28) 鄭東華, 앞의 책, p. 50.

(3) 導唱・結詞의 機能

민요의 가창을 후렴으로 시작하거나 아니면 정해진 序詞가 있는 謠種은 序詞로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며, 후렴으로 노래의 한 聯이나 한 篇을 끝맺는 것도 후렴이 없는 민요를 제외하고는 공통된 현상이다. 서우젯소리에는 序詞와 後斂이 어울려 序頭에서 가창되는데, 서사는 歌唱動機를 제시하고, 후렴은 노래의 가락을 조절하고 목청을 가다듬는,²⁹⁾ 즉 導唱的 機能을 갖고 있다. 물론 이와같은 기능은 서우젯소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유형의 민요도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

[12] 디딤불미노래

- A. 아아에헤에 에헤에요오
 불미나불어근 담배나먹자
 아아에헤에 에에에요오
 뗏다뗏다 삼강산이뗏다
 아아에헤에 에에에요오
 (中略)
 불미나불어근 담배나먹자
- B. 아아에헤에 에에에요오

[9-3, p.832]

[13] 뗏돌노래

- A. 이여이여 이여동하라
 뗏은울렁 날이나샌다
 내사운덜 어느날새리
- C. 이여이여 이여동하라 이여동하라
 뗏은울렁 세월가는디
 우리청춘 늙어지기만한다
- B. 이여이여 이여동하라 이여동하라

[9-3, p.876]

29) 拙稿, 앞의 논문, p.19.

[12] [13]에서 A는 導唱的, B는 結詞의 機能을 갖는 후렴으로 이 기능도 민요 가창에서 자못 중요한 기능이다. 各篇의 중간에 가창되는 C와 같은 후렴은 A와 B의 기능을 共有한다.

2. 律格的 位相

濟州島民謠에 대한 율격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歌詞를 제외한 후렴만의 율격을 분석하는 데는 많은 난점이 따른다. 따라서 본고는 하나의 試論으로서 후렴의 律格的 位相을 먼저 고찰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濟州島民謠의 율격을 고찰하고 체계화시키는 한 기초이론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音數律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이뤄낸 趙東一과 成基玉의 律格理論³⁰⁾을 바탕으로 후렴의 律格的 位相을 고찰한다. 그런데 이에도 난점이 따른다. 위의 律格理論이 민요의 율격 분석을 통해 韓國詩歌의 律格體系를 해명하려고 한 것이지만 후렴의 율격에 대해서는 고찰이 미치지 못한 점 때문에 이 이론을 그대로 후렴 율격의 분석에 적용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그런데, 후렴은 歌詞보다 정형을 이루어 정연하고, 민요의 主導的 律格을 이루므로³¹⁾ 후렴의 율격은 대체로 歌詞의 律格과 동일하게 나타난다. 일부 先後唱의 후렴 율격은 歌詞보다 짧은 다른 모습을 보이지만 이것은 관습적으로 律讀되는 律格的 休止에 따라 분석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濟州島民謠의 후렴을 살핀 바 固定體系와 準固定體系의 후렴은 율격이 정연히 드러나지만, 非固定體系의 후렴은 정연한 형태를 찾을 수 없으므로 율격 분석이 至難하다. 非固定體系의 후렴에 대한 音樂的 側面的 연구를 기다리면서 固定·準固定體系의 후렴을 중심으로 기능요와 비기능요로 대별하여 분석한다.

30) 조동일, 「한국시가의 전통과 율격」(한길사, 1984)

성기옥, 「한국시가율격의 이론」(새문사, 1986).

31) 鄭東華, 앞의 책, pp.51-53.

(1) 機能謠 後敎의 律格

A. 1音步格

- 방앗돌굴리는 노래 : 어기영차
 타작노래 : 어야홍아
 진토긋소리 : 에야~홍
 따비질노래 : 히 [9-3, p.969]
 흙덩이바수는 노래 : 어야호오 [9-3, p.967]
 나무쫓개는 노래 : 히이 [9-3, p.977]

B. 2音步格

- 해너노래 : 이여사나 이여도사나
 뱃들방아노래 : 이여이여 이여도홍라
 불미노래 : 어형어형 서화디야(청탁불미)
 아아아양 에에에요(디딤불미)
 김매는 노래 : 어긴너랑 사디로구나
 아아아양 에양에요(아췌기)
 어야두리야 더럼마아(더럼소리)
 달구노래 : 에헤에 달구여
 행상노래 : 어화넘차 어화로다
 집줄놓는노래 : 여오호~ 랑사
 나무베는노래 : 서두리도 더럼마야
 흙덩이 바수는 노래 : 서궁아기 더럼마
 흙이기며 두드리는 노래 : 어기 더럼마
 나무쫓개는 노래 : 서두리 더럼마야
 보리훑는 노래 : 어야두리야 흥애로다
 풀베는 노래 : 어허호오 흥애로구나
 타작노래 : 어야호야 어야도홍 [9-3, p.165]
 연자매노래 : 어형어허야 도오오요 [9-3, p.533]
 양태노래 : 이여이여 이여도양테
 망건노래 : 이여이여 이여도홍라
 이연맹긴 못아나지라 [9-2, p.499]

C. 3音步格

맷돌노래 : 이여이여 어허허어 이여동글라 [9-3, p.425, 1137]

김매는 노래(홍애기) : 음~야 에헤에 에야~홍 [9-3, p.505]

機能謠 후렴의 율격은 대부분 2音步格이다. 방앗돌굴리는 노래, 타작노래, 진토굿소리 등은 그 노동이 단순하면서 아주 빠르게 되풀이되는 동작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1音步格이 나타남은 당연한 결과다. 반면 타작노래, 흙덩이바수는 노래, 나무쫓개는 노래는 先後唱으로 가창될 때는 2音步格으로 변형되기도 한다.

勞動謠에 2音步格이 대부분인 것은 2音步格이 규칙적으로 되풀이되는 노동의 동작과 일치하는 율격³²⁾이므로 後敝에도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2音步格은 3音步格과 더불어 詩歌 律格의 기본형으로 중첩됨에 의해 변형되는데, 망건노래는 양태노래, 탕전노래와 같은 冠網謠로써 2音步格이지만 중첩되어 4音步格으로 변형되기도 한다. 勞動謠에 3音步格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은 3音步格이 노동의 동작보다는 춤의 동작이나 음악적 선율이 화려하게 변하는 호흡에 맞는, 변화감을 주는 가락 위주의 율격³³⁾이라는 점에 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김매는 노래(홍애기)와 맷돌노래의 후렴이 3音步格을 보인다. 이는 원래 2音步格이었는데, 1音步 뒤에 오는 音步末休止³⁴⁾ 대신에 音節 展開에 의해 한 音步가 첨가됨으로써 변형이 일어난 율격이다.

(2) 非機能謠 後敝의 律格

非機能謠의 후렴은 한 音步 한 行으로 된 單一律格보다는 同一音步의 중첩, 기준음절수의 변화, 서로 다른 音步의 교체 또는 결합에 의해 音步의 변형³⁵⁾이 일어난 複合律格이 주를 이루고 있다.

32) 조동일, 앞의 책, p.99.

33) 앞의 책, p.99.

34) 성기욱, 앞의 책, p.165. 음보말 휴지(P), 행말휴지(P1), 중간휴지(Pm)라는 용어를 써서 휴지를 구분함.

35) 조동일, 앞의 책, pp.124~125.

가) 單一律格

A. 3音步格

산천초목 : 어양 어기노 나노난다

서우갯소리 : 아하아하양 어허양 어허어어요

B. 4音步格

산천초목 : 받읍니다 받읍니다 지화자아이고 받읍니다

서우갯소리 : 아하하아 아하아양 어허어양 어허어어요

꽃염불 : 아행이이여 에헤이이여 어흥거려 보리로다.

나) 複合律格

A. 3音步 중첩

이야흥 : 이야흥 야아흥 그렇고말고요

이야흥 야아흥 다꼴을말이나

너냥나냥 : 너냥나냥 두리둥실 놀구요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상사랑이로고나

오돌또기 : 둥그대당실 둥그대상실 여도당실

연자버리고 달-도 밝-다

내-가 머리로 갈까나

봉지가 : 에헤 이히이히이히 야아야아

에헤 이히이히이히 야아야아

야아 에헤에에헤에 열씨구

동풍가 : 에헤에 에행이이헤요 사랑아

내동동 내사랑만 가노라

B. 2·3音步 결합

용천검 : 에야라 뒤야

에야라 뒤야라 방애방애로다

사랑가 : 에헤야 에이요라

설마 두리둥둥 내사랑아
중타령 : 에헤용에야 에헤용에야
요리즈리나하야도 지야절로 심중만난다

C. 3·4音步 결합

제화타령 : 에-따 요-년 돈받아라
지화는 산경이돌고서 김계화내돈만 받아라
관덕정알 : 지화자종울소 대명당 허리로구나
아기종 아장거려서 신목사후리레 나간다.

濟州島의 唱民謠에 대해서는 羅運榮³⁶⁾과 李輔亨³⁷⁾ 등에 의해 음악적 분석이 진전되었고, 「韓國의 民俗音樂 : 濟州道篇」(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에 채록, 악보화되었으나 문학적인 면에서는 金榮敦³⁸⁾에 의해 가창지역에 따른 분류, 본토 민요와의 비교 고찰 등을 통해 唱民謠의 개요를 밝힌 정도로 내용이나 율격 등의 고찰은 전혀 손대지 못한 실정이다.

唱民謠 후렴의 율격을 분석함에는 음악적인 측면의 보조가 필요하지만, 율격과 음악은 필수적인 상관관계를 가지지 아니하므로 문학적인 면에서만 분석을 시도했다. 그 결과 機能謠와는 판이하게 3音步格이 주를 이루는데, 이것은 唱民謠의 선율적 성격과 일치하는 것이다. 특히 3音步가 2회·3회 중첩된 3音步格 2행, 3행의 후렴을 한 행으로 펼치면 6音步·9音步가 되는데, 이것은 중첩에 의한 後斂 律格의 변형으로, 음악적 선율의 지속을 가능케 한다. 그리고 2·3音步의 결합과 3·4音步의 결합은 서로 다른 音步의 결합에 의한 변형율격으로 이를 한 행으로 펼치면 5音步와 7音步의 홀수음보로의 변형에 해당한다.³⁹⁾ 이와같은 율격은 민요와 고전시가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서

36) 羅運榮, “濟州島民謠의 作曲學的 研究”(1), 연세 논총 제9집, 연세대학교 대학원, 1972.

37) 李輔亨, “音樂과 舞踊”,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제주도편), 1974, pp. 285~315.

38) 金榮敦, “城邑民謠의 實相”, 제주대학교논문집 인문학편 제20집, 1985.

39) 성기옥, 앞의 책, p. 229. 5音步는 기본율격인 2音步+3音步 또는 3音步+2音步의 형태로 결합된 '과생보격'이라 함. 이와같은 원리에 의하면 3音步와 2音步가 중첩된 4音步의 결합에 의해 변형된 7音步도 성립될 수 있으리라 봄.

로 대조적인 성격의 울격, 즉 규칙적인 노동의 동작, 안정감을 주는 박자 위주의 울격인 2·4音步와 춤의 동작, 변화감을 주는 가락 위주의 울격인 3音步의 결합을 통해 홀수음보가 드러내는 旋律의 무궁한 변화를 창출하고자 한 데서 이루어진 변형울격으로 파악해 둔다.

이처럼 후렴 울격이 중첩, 결합에 의해 변형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은 선율이 풍부하다는 唱民謠의 性格을 입증하는 좋은 예라고 본다.

IV. 結 語

現場論的 方法論에 의해 수집 채록된 濟州島民謠의 後敎을 類型·機能·律格的 位相에 걸쳐 분석한 결과를 요약 정리한다.

1) 후렴의 유형을 ① 形態 및 가창되는 位置, ② 構成要素에 따라 분류했다. ①에 따르면 A. 固定體系, B. 準固定體系, C. 非固定體系의 後敎으로 분류되는데, A는 선후창으로 가창되는 勞動謠의 일부 요종과 唱民謠에, B는 濟州島民謠의 대표적인 요종인 맷돌방아노래, 해너노래, 김매는 노래 등의 勞動謠와 儀式謠에, C는 밭밟는 노래 등 農業謠에서 추출되었다. ②에 따르면 A. 聲音後敎, B. 語辭後敎, C. 聲音語辭混成後敎으로 분류되는데, 勞動謠의 後敎은 A와 C로 되어 있고, 儀式謠는 C, 唱民謠는 3편의 B를 제외하면 모두 C였다.

2) 後敎의 기능을 추출한 결과 A. 助興·調律的 機能, B. 休息·轉換的 機能, C. 導唱·結詞的 機能이 나타났다. A는 노래의 興을 돕고 음악적 선율을 일으키는 기능으로 모든 민요의 後敎에 나타나는데, 특히 장시간의 노동을 하면서 부르는 勞動謠의 후렴은 이 기능이 강하다. B는 다음의 歌詞를 생각해내고, 歌詞의 내용을 음미하는 시간을 갖게 하는 기능으로 선후창 민요의 후렴은 이 기능이 두드러지다. C는 가창을 유도하고 노래의 끝맺음을 보여주는 기능으로 序頭와 結尾에서 가창되는 후렴이 갖는 기능이다.

3) 후렴의 律格的 位相을 機能謠와 非機能謠로 구분하여 고찰했다. 機能謠 後敎의 울격은 빠른 동작으로 이루어지는 노동에서 불리는 타작노래, 방앗돌 굴리는 노래 등의 1音步格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2音步格이다. 이것은 노동의 규칙적 반복 동작과 일치하는 울격으로, 勞動謠의 보편적 울격이다. 非機能謠인 唱民謠 後敎의 律格은 3音步格이 중심울격이다. 複合律格의 경우 3音步

의 2·3회 중첩에 의한 6·9音步와 2·3音步, 3·4音步의 대조적 울격의 결합에 의한 5音步와 7音步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민요와 고전시가에서 찾아보기 드문 변형울격으로 파악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고는 하나의 試論일 따름이다. 또한 민요의 형식론에 국한되었다는 데 한계가 있다. 형식은 내용을 담는 그릇인 만큼 어떤 형식이므로 어떤 내용이 나타난다는 것을 함께 고찰해야 더욱 의의가 있다. 이것은 현상황에서는 至難한 과업으로 먼저 濟州島民謠의 울격, 문체, 수사기교, 주제, 제재, 사상 등의 분야별로 연구가 진척되어야 가능하다. 그리고 분야별 풍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濟州島民謠論이 정립될 것이다. 이것은 곧 韓國民謠論을 정립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본토민요와 외국의 분야별 비교 고찰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할 과제다. 그러므로 본토민요 後敎과의 비교 연구도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의의있는 과제라고 본다.

參 考 文 獻

- 金榮敎, 「濟州島民謠研究」, 조약돌, 1983.
- 성기옥, 「한국시가율격의 이론」, 새문사, 1986.
- 任東權, 「韓國民謠研究」, 二友出版社, 1980.
- 張德順外, 「口碑文學概說」, 一潮閣, 1980.
- 全圭泰, 「韓國文學의 通時的 研究」, 知文社, 1981.
- 鄭東華, 「韓國民謠의 史的 研究」, 一潮閣, 1981.
- _____, 「民謠에 나타난 韓國人의 意識」, 한국방송사업단, 1983.
- 정병옥, 「한국고전시가론」, 신구문화사, 1982.
- 조동일, 「한국시가의 전통과 율격」, 한길사, 1984.
- _____, 「叙事民謠研究」, 啓明大出版部, 1983.
- _____, 「우리 문학과 의 만남」, 흥성사, 1981.
- 최철·설성경, 「민요의 연구」, 정음사, 1984. 「韓國民俗大觀·6」(口碑傳承·其他), 高麗大民族文化研究所, 1982.
- Ruth Finnegan, Oral Poet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7.
- 姜性均, “제주도 김매는 노래 연구”, 제주대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 琴基昌, “高麗歌謠에 미친 詞文學의 影響”, 한국어문학(44·45), 한국어문학회, 1984.
- 金榮敎, “城邑民謠의 實相”, 제주대논문집 20집(인문사회학편), 1985.
- 金永一, “「別曲」의 形成과 餘音考”, 「加羅文化」(1집) 慶南大加羅文化研究所, 1982.
- 羅運榮, “濟州島民謠의 作曲學的 研究” 「연세논총(9)」, 연세대대학원, 1972.
- 邊聖久, “濟州島 서우젯소리 연구”, 제주대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 尹致富, “韓國 자장가 研究”, 「濟州島研究」(2집), 제주도연구회, 1985.
- 李輔亨, “音樂과 舞蹈”,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제주도편), 1974.
- 秦東赫, “民謠餘音考”, 「국어국문학」(36집), 1967.
- 黃希榮, “韓國詩歌의 餘音攷”, 「국어국문학」(18집), 1957.

目 次

創刊辭

激勸辭

〈論 文〉

濟州島 巫俗의 祭物과 神	玄容駿	7
李德一의 '憂國歌'考	梁淳琦	15
Baudelaire詩의 初期 移入樣相 : '懊惱의 舞蹈'를 중심으로	文聖淑	37
몇 語形成 接尾辭에 대하여 : 특히 '－이다, －대다, －거리다, －하다, －ㅅ'의 관련을 중심으로	金智弘	55
濟州島方言의 時相에 관한 一考	吳鶴秀	83
蔡萬植文學의 諷刺 : '太平天下'를 중심으로	姜晶植	103
創世·始祖 神話考 : 물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邊泰又	115

〈現地學術調查報告〉

濟州道 南濟州郡 安德面 大坪里	133
－ 調査経緯·社會背景·方言·民謡·說話·信仰－	
濟州道 北濟州郡 翰林邑 明月里	229
－ 調査経緯·社會背景·歲時風俗·方言·民謡·說話·信仰－	

〈彙報〉

卒業生名單·卒業論文·現勤務處	320
-----------------------	-----